



수제로 만든 양갱을 직접 자르고 있다.



양외당 내분예 진열된 양갱들.



쌍화차.



양외당 내부.

정직하고 건강한 맛 니들이 양갱을 알아?

순천 '양외당'

할머니얼, 할머니의 사투리인 '할매'와 밀레니얼 세대의 '밀레니얼'을 합성한 신조어다. 자극적이거나 이색적인 맛을 찾아 해매던 젊은 층들이 팔이나 흑임자, 썩 등 전통의 맛을 즐기기 시작한 것이다. 일명 '할매 입맛'이 또 다른 트렌드가 되어 다양한 음식들이 주목받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제 양갱으로 전 연령층을 사로잡은 순천의 양외당을 찾아 성공 비결을 들어본다.

◇ 양갱 만드는 기와집 '양외당'

골목 어귀 짙은 쌍화당 냄새가 그윽하다. 안을 일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날찍한 유리 문이 테리어를 해두었다. 들어가지 않고서야 배길 수 없는 향과 멋이다. 회색빛 건물 틈 불쑥 튀어나와있는 빛바랜 주홍빛 기와 모양 천장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다양한 연령대가 한데 모여있다. 창가 쪽에 앉아 곱탕 고우뚱 정성껏 끓여내 진한 대추차를 마시는 이는 옛된 여대생이다. '할매니얼'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은 모양이었다. 케이크가 아닌 양갱

재미도 쏠쏠하다. 상큼함이 돋보이는 유자 양갱, 향긋한 베리향이 가득한 블루베리 양갱, 고구마를 통째로 씹는 듯한 고구마 양갱은 입맛에 맞춰 골라먹을 수 있다. 가장 기본인 팔양갱부터 호불호 적은 고구마, 단호박 등의 메뉴는 꾸준한 스테디셀러다. 인기로 합입어 양외당은 개업 2년 차에 광양, 여수, 인천에 지점을 내어 양갱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고 있다.

◇ 맛·건강 모두 잡은 '양외빙수'

수제 양갱이 간판이라면 양외빙수는 감초 중의 감초다. 한겨울에도 불타나게 팔린다. 입자 고운 얼음가루와 그 위에 덩그러니 앉혀진 팥, 그리고 양갱맛게 고명으로 올려진 인절미가 전부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만큼 양외당의 터줏대감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계절 내내 팔빙수가 인기 있을 수 있는 요인은 질 좋은 팥에 있다. 트렌드하지 않은 시대에 팥과 양갱이 성업하게 된 조건은 무엇일까.

이동석 대표(40)는 "디저트 카페는 많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디저트는 없다"며 양갱으로 카페를 차리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근 망백의 어르신들이 이곳에 꼭 오고 싶으시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오셨다. 거동조차 힘드신 분이셨는데, 정말 감사했다. 박 대표가 말한 것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디저트 카페가 없었는데 양외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웃어보였다.

그는 양갱을 대표 메뉴로 한 카페들이 해외배송을 시작하며 방부제를 첨가하기 시작하는데, 양외당은 절대 첨가제를 넣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까지 정직하고 건강한 맛으로 승부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글=민승기 기자·사진=김성훈 기자

남녀노소 입맛 사로잡아

단맛 적고 팥 고유의 맛 풍부

인절미 없은 양외빙수 인기

을 잘라먹으며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이 유난히 눈에 띈다. 젊은 세대라면 부적대는 카페와 달리 양외당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 단맛 적어 커피와 잘 어울려

양갱이 주 메뉴만큼 포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진열돼 있다. 정성스레 포장된 수제 양갱은 이제 스승의날, 어버이날 등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구매하는 이들이 많다. 양외당은 중장년층에게는 아련한 추억과 향수를 선물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과 재미를 안겨준다. 양외당의 수제 양갱은 시중 판매되는 양갱보다 단맛이 적고 팥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맛이 풍부해 훨씬 입맛을 당긴다. 과하게 달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입맛에 따라 고르는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